

가계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행동 분석: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교

Analysis of the Expenditure Behavior by Family Types: Comparison of single-mother families and two-parent families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차경욱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Instructor: Cha, Kyung-W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expenditure between single-mother families and two-parent families.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693 single-mother families and 14,439 two-parent families were selected. A t-test was completed to examine how the expenditure patterns of two types of families differ. Total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on 11 consumption categories were modeled as functions of permanent income an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Also, dummy variable interaction technique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independent variables differently affected the expenditures between single-mother families and two-parent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ingle-mother and two-parent families in the levels and shares of expenditures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an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expenditures. Single-mother families had spent less than did two-parent families in each consumption category. However, single-mother families had significantly higher expenditure shares for food at home, shelter, utilities, apparel and shoes, and education. Income elasticities for food at home, shelter, utilities, and education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two-parent families.

▲ 주요어(Key Words) : 소비지출행동(expenditure behavior), 소비지출비목(consumption category),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편모가계(single-mother family), 양부모가계(two-parent family)

I. 서론

전체 국가경제에서 가계로 구성된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이르고 있어,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은 그 나라의 생산수준 및 생산구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는 욕구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계구성원의 인적자본의 형성이나 사회기능의 작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입요소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소비지출에 관한 과거의 연구동향이 일반가구의 소비지출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주류였던 것에 반해, 최근에 들어서는 각기 다른 가구유형간의 소비지출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Horton & Hafstrom, 1985; Lino, 1994; 문숙재·정순희, 1997; 성영애·양세정, 1997; 이윤금·양세정, 1999). 농촌가계, 노인가계, 편모가계 등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특정 가구유형의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연구는 가족 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정책입안자에게 중요한 기초

* 주저자 : 차경욱(hkyungwcha@hotmail.com)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편모가계는 이혼을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편모모가계는 1980년에 74만 가구, 1990년에 89만 가구에서 2000년에는 115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2000년 현재 편부모가계는 22만 가구인데 반해, 편모가계는 9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편모가계의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2020년이 되면 편모가계가 112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1).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편모가계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으며, 선행연구들은 편모가계의 빈곤화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물론 편모가계는 양부모가계에 비해 정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Arendell, 1987; Espenshade, 1979; Lino, 1994; 공세권·조애지, 1995; 문숙재·정순희, 1995). 편모가계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소득활동을 수행해 오던 남성가구주의 부재로 인해 여성 혼자서 그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율이 남성의 임금을 보다 낮고,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편모들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고용 또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Bellar & Chung, 1988; Humphries, 1995).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시장노동의 3중 부담은 편모가계가 빈곤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조홍식, 1996).

이처럼 편모가계가 빈곤층의 전형이 되고 있는 바, 이들의 빈곤이 사회적 빈곤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편모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편모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구체적인 소비지출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편모가계의 요구와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부조나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비교하고,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지출행동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두 집단간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비교할 것이다. 소득탄력성은 실제 소비지출의 성취경도와 성취에 대한 열망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대표적 함수로서, 집단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지출행동 및 요구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수행을 통해 편모가계의 경제적, 재정적 요구를 파악하고, 편모가계의 사회복지 정책 입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편모가계의 경제구조나 지출행동에 관한 연구는 편모가계의 수적 팽창과 더불어 일찍이 그들의 빈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Epstein(1979)은 1972-73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주거비, 교통비, 식비지출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편모가계가 지출비목별 총 소비지출액 자체는 적었지만, 소득에 대한 지출비율은 양부모가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8-79년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를 사용한 Weiss(1984)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부부가 결혼상태에 있었던 마지막 해와 이혼 후 편모가계가 된 후 5년 간의 주거비와 식비 지출을 상·중·하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이혼으로 인해 편모가계가 되면서 소득감소를 겪었으며, 소득감소는 가계의 주거비와 식비 지출액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zear와 Michael(1988)의 연구와 Schwenk(1989)의 연구는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을 비교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자녀양육 지출비목에 더 높은 예산비율을 할애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허경옥(1995) 역시 1986년 미국의 CES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가계와 편모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편모가계의 자녀양육비는 일반가계의 자녀양육비보다 절대적 액수는 적지만 가계소득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 높은 비율이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밝혔다.

위의 연구들은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지출행동 중 식비나 주거비, 교통비, 자녀양육비 등 몇몇 특정 지출비목에서의 지출액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으나, Horton 과 Harfstrom(1985)은 1972-73년 CES 자료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전반적인 지출행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항상소득을 사용하여 소득탄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식료품비,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가사용품비, 피복비, 교양오락비 중 주거비의 경우에서만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이 편모가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CES를 분석한 De Weese(1989)의 연구에서는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 보다 더 높은 의복 한계 소비성향을 가진다고 보고했다.

Lino(1990)는 편부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액이나 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그들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크기,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이 특정 지출비목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bdel-Ghany와 Schwenk(1993)은 1989년 CES를 이용하여 편부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패턴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how-test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독립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주요소비지출 비목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주거비를 제외한 5개 지출비목(총식료품비, 가정내 식료품

비, 가사용품비, 피복비, 교양오락비)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o(1994)는 1989-91 CES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 및 지출패턴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혼상태를 기준으로, 기혼, 이혼 및 별거, 미혼모, 사별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가계의 경제상태를 분석한 결과, 편모가계의 경제상태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훨씬 낮으며, 편모가계 중에서도 미혼모가계의 경제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간에 소비지출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따라서도 소비지출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편모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진행된 편모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문숙재와 정순희(1995)는 각 지출비목에 할당된 소비지출 비율과 각 지출비목의 소득탄력성을 통해 서울지역의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가정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의 경우, 편모가계의 예산할당 비율이 양부모가계 보다 높았고, 외식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잡비 등 선택재의 성격을 띠는 비목에서는 양부모가계의 할당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출비목 중에서 외식비, 교육비 및 의복·신발비의 소득탄력성은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 보다 높았으며, 가정내 식료품과 교양·오락비의 경우에는 편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문숙재와 정순희(1995)의 연구는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에 사용된 편모가계의 표본크기가 작았으며, 표본이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공세권·조예저(1995)는 결혼가족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편부모가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가계경제 규모 및 소득구조, 지출에 대한 부담 등 일반적인 경제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소비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편모가정의 소득 및 지출구조를 중심으로 가정경제상태를 평가한 주인숙(1998)의 연구에 따르면, 편모가계의 소득은 양부모가계 소득의 절반정도인 반면, 소비지출은 78%정도의 비율로 나타나, 편모가정의 경제상태가 훨씬 더 압박상태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윤금과 양세정(1999) 역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구조, 자산 및 부채구조, 소비지출구조를 통한 경제구조상태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모가계의 소득은 양부모가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저축 및 부채보유액도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균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적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편모가계가 0.938로 양부모가계의 0.74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주인숙(1998)이나 이윤금과 양세정(1999)의 연구는 모두 전국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두 집단 간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이나 비목별 소득탄력성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자료인 2001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표본선정의 한계성을 해결하였다. 또한 편부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행동을 비교함을 물론, 각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 영향력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소비지출행동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행동 및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및 지출구성비는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비목별 소비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는 무엇이며, 그 영향력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셋째, 비목별 소득탄력성은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1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이다.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도시가계조사는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과 소득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며, 조사대상가가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기장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통계청, 2002).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표본은 소득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근로자가구로서, 모든 자녀가 18세 미만이며, 기타 동거가족 없이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편모가계는 사별, 이혼·별거 및 미혼모가계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세부 집단간 구분은 하지 않았고,

양부모가계는 아내가 있는 기혼남성가구주 가계를 선택했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5,132 가구로, 693 편모가구와 14,439 양부모가구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5,132)

가구 특성	편모가계 (N=693)	양부모가계 (N=14,439)
가구원 수(명)	2.72	3.81
가구주 연령(%)		
30세이하	21 (3.0)	1,491 (10.3)
31~40세	330 (47.6)	8,381 (58.1)
41~50세	338 (48.8)	4,393 (30.4)
51세이상	4 (0.6)	174 (1.2)
	평균 39.8세	평균 37.7세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239 (34.5)	1,223 (8.5)
고졸	344 (49.6)	6,978 (48.3)
초대졸이상	110 (15.9)	6,238 (43.2)
가구주 직업(%)		
전문·관리직	42 (6.1)	3,757 (26.0)
서비스·판매직	474 (68.4)	3,730 (25.8)
기능·기술직	84 (12.1)	6,153 (42.6)
단순노무직	93 (13.4)	799 (5.5)
막내자녀 취학상태(%)		
미취학	109 (15.7)	7,118 (49.3)
초등학교	290 (41.9)	5,170 (35.8)
중학교	209 (30.2)	1,524 (10.6)
고등학교	85 (12.3)	627 (4.3)
주거상태(%)		
자가	171 (24.7)	6,748 (46.7)
전세	260 (37.5)	6,052 (41.9)
월세	262 (37.8)	1,639 (11.4)
월평균총가계소득(원)	1,507,863	2,622,615
근로소득	1,010,236	2,423,069
비근로소득	497,626	199,545

가구원수는 편모가계가 2.72명으로 양부모가계의 3.81명보다 1명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은 편모가계의 경우 평균 39.8세로 양부모가계의 남성가구주 평균연령 37.7세보다 약 2세 정도 높았다. 가구주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양부모가계는 43.2%로 편모가계의 15.9%보다 월등히 많았고, 중졸 이하의 경우 양부모가계는 8.5% 정도였으나, 편모가계는 34.5%를 차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편모가계에 비해 양부모가계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을 살펴본 결과, 편모가계는 서비스·판매직 중

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68.4%)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문·관리직은 양부모가계 26.0%에 비해 편모가계는 6.1%로 매우 낮은 비율만이 종사했고, 단순노무직은 양부모가계(5.5%)에 비해 편모가계(13.4%)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양부모가계의 경우 거의 절반(49.3%)이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데 반해,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15.7%의 가계만이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었다.

주거소유형태는 편모가계의 자가비율(24.7%)이 양부모가계(46.7%)의 약 절반정도였으며, 월세비율은 편모가계(37.8%)가 양부모가계(11.4%)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계의 월평균총가계소득은 편모가계 소득의 1.7배를 넘으며, 근로소득은 2.4배인 것으로 나타나 편모가계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양부모가계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부모가계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총가계소득의 8%도 되지 않는 반면, 편모가계는 33%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모가계의 이전소득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편모가계의 소득이 양부모가계의 소득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암시한다.

3. 측정도구의 구성

종속변수는 각 비목별 소비지출액으로서,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의 소비지출 10대 비목을 사용하되 식료품비를 가정내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분리하여 11개의 세부비목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는데, 가계소득은 항상소득의 대응변수로서 총소비지출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비근로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막내자녀 취학여부, 거주상태가 포함되었다. 관련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각 비목별 소비지출규모, 1인당 소비지출규모 및 지출구성비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 값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모델(OLS)을 구성하였고, 이 모델에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추가하여 각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즉,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를 구분하는 가변수(편모가계=1, 양부모가계=0) 및 그 가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모델에 포함시키고, 각각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사이에서 유의하게 다르게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표 2> 관련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ln)	
식료품비	가정 내에서 지출되는 식료품비로서, 곡류, 육류, 낙농품, 어개류, 채소 및 해조류, 음료, 빵 및 과자류 등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외식비	식사대, 음주대, 학교급식, 기타 외식 등 집 밖의 모든 식사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주거비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관리비, 기타 주거관련 경비 등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광열·수도비	전기세, 수도, 가스 및 연료비, 공동주택난방비 등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가구집기·가사용품	가구, 가정용 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피복·신발비	모든 의복 및 신발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보건의료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병원비 등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교육비	납입금, 교재비, 학원 및 과외비 등 보충교육비, 기타교육비, 문방구 등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교양·오락비	신문도서, 라디오, 비디오, 오락기, 운동기구 등 교양오락용품기구, 영화, 음악회, 수영장, 노래방 이용료 등 교양오락서비스 등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
교통·통신비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공공교통 요금,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개인교통 관리비 및 보험료, 전화요금, 우편요금, 정보통신 이용료 등을 포함한 월평균 지출액
기타소비지출	담배, 미미용 용품 및 서비스, 장신구, 경조사비, 종교관계비 등에 월평균 지출액
독립변수	
소득(ln)	항상소득의 대용변수로 11개 비목 각각의 소비지출액을 총합한 액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비근로소득(ln)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에 자연로그
가구원수(ln)	표본가계 내에 상주하는 가족원수의 자연로그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연령으로 연속변수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의 세집단으로 분류 (준거집단: 중졸이하)
가구주 직업	단순노무직, 전문·관리직, 서비스·판매직, 기능·기술직의 네집단으로 분류 (준거집단: 단순노무직)
막내자녀 취학여부	막내자녀가 취학상태이면 1, 미취학이면 0
거주상태	자가, 전세, 월세의 세집단으로 분류. (준거집단: 월세)

수 있다.

$$\ln Ci = \beta_0 + \beta_1 \ln(inc)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 D_f * (\beta_{0f} + \beta_{1f} \ln(inc) + \beta_{2f} X_2 + \dots + \beta_{kf} X_k)$$

여기에서 $\ln Ci$ 는 지출비목 i 에 대한 월평균 소비지출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고, $\ln(inc)$ 은 가계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X_2 부터 X_k 까지는 가계소득 외의 다른 독립변수들을 나타낸다. D_f 는 가변수로서 양부모가계는 $D_f = 0$, 편모가계는 $D_f = 1$ 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때 각 독립변수들이 갖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양부모가계 [$D_f = 0$]

$$\ln Ci = \beta_0 + \beta_1 \ln(inc)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편모가계 [$D_f = 1$]

$$\ln Ci = (\beta_0 + \beta_{0f}) + (\beta_1 + \beta_{1f}) \ln(inc) + (\beta_2 + \beta_{2f}) X_2 + \dots + (\beta_k + \beta_{kf}) X_k$$

셋째,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측정하고,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소비지출 평균액(C_i)과 가계소득(inc)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이 때 $\ln(inc)$ 의 회귀계수에 해당하는 값이 소득탄력성이 되는데, 위의 식에서 보는 것처럼 양부모가계인 경우 β_1 , 편모가계인 경우 $(\beta_1 + \beta_{1f})$ 가 소득탄력성에 해당된다. 만약 β_{1f}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해당 비목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에 유의하게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탄력성은 실제 소비지출의 성취정도와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함수로서, 성취되지 않은 욕구가 클수록 소득탄력성이 높고, 가구구성원들은 증가된 소득을 그 비목에 많이 사용한다(Magrabi, Chung, Cha & Yang, 1991). 그러므로 집단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지출행동 및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IV. 결과 및 해석

1.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 비교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를 각 비목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든 지출비목에서 두 집단간의 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편모가계는 양부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적은 액수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계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액은 1,193,487원으로 양부모가계 총 소비지출액 1,769,238원의 67.5%에 해당되는 액수로 측정되었으며, 편모가계는 식료품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198,664원)이 가장 많았던 것에 반해 양부모가계는 교통·통신비 지출액(309,611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소비지출비목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t-검증	지출비(ratio)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총소비지출	1,193,487	1,769,238	18.76***	0.675
식료품	198,664	272,337	16.70***	0.729
외식	114,535	192,825	25.54***	0.594
주거	76,268	53,370	-5.01***	1.429
광열·수도	74,156	87,256	5.42***	0.850
가구집기·가사용품	45,461	74,845	5.79***	0.607
피복·신발	78,835	97,251	4.92***	0.811
보건·의료	37,403	62,952	4.79***	0.594
교육	193,738	232,481	4.95***	0.833
교양·오락	51,553	92,212	4.43***	0.559
교통·통신	174,408	309,611	8.65***	0.563
기타소비지출	148,465	294,097	19.72***	0.505

* p<.05 **p<.01 ***p<.001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의 경우, 편모가계의 지출액(198,664원)이 양부모가계의 지출액(272,337원)의 73% 정도인데 반하여, 외식비는 편모가계가 114,535원, 양부모가계가 192,825원으로 그 비율이 59%로 나타났다. 또한 편모가계의 교양·오락비

와 교통·통신비는 양부모가계의 56% 수준에 불과했고, 편모가계의 기타소비지출은 양부모가계의 지출의 50.5%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편모가계에서 외식비나 교양·오락비, 담배, 이미용비, 장신구, 경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비지출이 유의하게 적은 것은 그들이 재정자원의 절대적 부족을 경험하여, 생활필수재가 아닌 부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대부분 편모들이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겪기 때문에 취미생활이나 사회성 개발에 시간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휴대폰 사용의 급증과 전자통신망을 통한 상거래, 취미활동 등이 활성화되면서, 교통통신비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편모가계는 이 비목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거비는 유일하게 편모가계의 지출액(76,268원)이 양부모가계의 지출액(53,370) 보다 유의하게 많은 비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가계의 11.4%만이 월세인 것에 반해 편모가계의 38%가 월세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편모가계의 주거비 지출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주거비가 편모가계의 소비지출구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며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편모가계의 소비지출 안정성 도모에 필수적임을 함축한다.

<표 4>는 조사대상 편모가계의 평균 가구원수가 2.7명, 양부모가계의 평균 가구원수가 3.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가족구성원 1인당 소비지출의 규모를 각 비목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표 4>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지출비목별 1인당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소비지출비목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t-검증	지출비(ratio)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총소비지출	449,206	471,398	2.05*	0.953
식료품	74,398	72,204	-1.42	1.030
외식	42,891	51,839	7.93***	0.827
주거	29,286	14,223	8.11***	2.059
광열·수도	28,354	23,240	-5.43***	1.220
가구집기·가사용품	17,098	20,199	1.64	0.846
피복·신발	30,322	26,018	-2.97**	1.165
보건·의료	12,945	16,818	2.51*	0.770
교육	70,960	59,569	-4.49***	1.191
교육(자녀 1인당) ^{a)}	117,594	128,393	2.46*	0.916
교양·오락	21,268	24,864	0.87	0.855
교통·통신	65,993	83,212	3.56***	0.793
기타소비지출	55,692	79,213	9.15***	0.703

a) 교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 p<.05 **p<.01 ***p<.001

편모가계의 가족구성원 1인당 총 소비지출은 449,206원, 양부모가계의 1인당 총 소비지출은 471,398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에서 주거비의 경우만 편모가계의 지출액이 양부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고,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 편모가계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적었던 결과와는 달리, 1인당 소비지출액에서는 주거비 외에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및 교육비에서도 편모가계의 소비지출액이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액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모가계의 1인당 주거비(29,286원)는 양부모가계의 1인당 주거비(14,223원)의 2배 이상이었으며, 광열·수도비 역시 편모가계의 1인당 소비지출액이 양부모가계의 1.2배 정도였다. 이는 전언한 바처럼, 편모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수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편모가계의 1인당 교육비(70,960원)는 양부모가계의 1인당 교육비(59,569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비의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지출규모는 가족구성원 1인당 지출액을 비교하기 보다는 자녀 1인당 지출액을 비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자녀 1인당 지출액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편모가계의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액(117,594원)은 양부모가계의 자녀 1인당 지출액(128,393원)의 92% 수준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3>과 <표 4>에서 보는바 처럼, 편모가계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실질 비용은 양부모가계 보다 적다. 그러나, 총 소비지출에 대한 교육비의 구성비를 보여준 <표 5>의 결과를 보면, 편모들이 그들의 경제적 복지감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자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여,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높은 열망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Garfinkel & McLanahan, 1986; Schiller, 1976; 문숙재·정순희; 1995)를 설명할 수 있다.

편모가계의 1인당 외식비는 42,891원으로 양부모가계의 1인당 외식비인 51,839원의 8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그리고 기타소비지출 역시 편모가계의 1인당 지출액이 양부모가계의 1인당 지출액 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이다. 편모가계의 경우, 가장 많은 지출을 할당한 비목은 가정내 식료품비(16.5%)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순서인데 반해, 양부모가계의 경우에는 교통·통신비(17.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 교육비가 그 뒤를 이었다.

편모가계에서의 식료품 구성비는 양부모가계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앵겔의 제 1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서, 편모가계의 소비생활수준이 양부모가계에 비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양부모가계와 비교할 때, 편모가계의 지출구성비가 유의하게 높은 비목은 식료품비 외에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등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비목과 교육비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비의 지출구성비(16.2%)는 식료품비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편모가

계가 양부모가계 보다 자녀교육 지출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한다는 선행연구(Lazear & Michael, 1988; Schwenk, 1989)를 지지함과 동시에, 자녀교육에 대한 편모들의 열망을 보여주었다.

<표 5>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단위: %)

소비지출비목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t-검증
총소비지출	(100.0)	(100.0)	
식료품	16.5	15.4	-3.92***
외식	9.6	10.9	5.01***
주거	6.4	3.0	-14.06***
광열·수도	6.2	4.9	-7.12***
가구집기·가사용품	3.8	4.3	1.56
피복·신발	6.6	5.5	-5.28***
보건·의료	3.1	3.6	1.78
교육	16.2	13.1	-7.19***
교양·오락	4.3	5.2	3.08***
교통·통신	14.6	17.5	7.80***
기타소비지출	12.5	16.6	10.73***

* p<.05 **p<.01 ***p<.001

편모가계의 지출구성비가 양부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낮은 비목은 외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소비지출로서, 선택재의 성격을 갖는 비목들이었다. 특히 기타소비지출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서, 편모가계의 소비지출구성이 양부모가계에 비해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2.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가구특성이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비교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서 주효과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양부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상호작용효과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독립변수가 편모가계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의 계수를 합한 값이 되고, 만약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변수의 영향력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가계의 항상소득의 대용변수로 사용된 총 소비지출액은 편모가계 및 양부모가계의 모든 비목별 소비지출액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각 비목별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증가비율

은 각 비목별로 다르며,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득탄력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양부모가계의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및 기타소비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및 교통·통신비에는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비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및 기타소비지출이 증가한 반면, 광열·수도비와 교통·통신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근로소득의 영향력은 광열·수도비와 피복·신발비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부모가계의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및 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했고, 외식비,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소비지출은 감소하였다.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주거비와 교통·통신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른 교육비 증가는 편모가계에 비해 양부모가계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부모가계의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및 교육비가 증가했고, 외식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가 감소했다.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편모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건·의료비가 증가했으며, 외식비, 가구집기·가사용품 및 교통·통신비는 양부모가계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외식비 감소비율은 편모가계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계의 가구주가 고졸 이상일 경우에는 중졸이하일 때 보다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및 교양오락비의 지출액이 많았고, 초대졸 이상일 경우에는 위의 비목 외에 외식비와 기타소비지출에서도 유의하게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고졸일 때, 피복·신발비와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했고, 초대졸 이상일 경우에는 교양오락비와 기타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고학력 가구주가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고졸일 경우, 편모가계는 양부모가계 보다 외식비와 주거비에서 유의하게 적은 소비지출을 했으며, 가구주가 초대졸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비와 교양오락비 및 기타소비지출에서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양부모가계에서는 가구주가 전문·관리직, 서비스·판매직 또는 기능·기술직일 때, 이들의 외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단순노무직 가구주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서비스·판매직일 때,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외식비의 지출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편모가계 보다 많았다. 그러나, 가구주가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

는 편모가계는 단순노무직 가계 보다 주거비, 광열·수도비 및 피복·신발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편모가계가 소득수준이 낮고, 월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의 지출이 많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지출규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편모가계는 같은 직종의 양부모가계에 비해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많았고, 교육비와 기타소비지출은 적었다.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편모가계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양부모가계에 비하여,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지출액이 유의하게 적었고, 보건·의료비와 교양·오락비는 유의하게 많았다. 기능·기술직에 종사하는 편모가계는 기능·기술직에 종사하는 양부모가계보다 외식비가 적었고, 보건·의료비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가 취학한 경우는 취학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양부모가계의 외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와 편모가계의 외식비, 교양·오락비 및 기타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부모가계의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및 기타소비지출과 편모가계의 보건의료비는 막내자녀가 취학한 경우에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가 취학한 편모가계의 교육비는 양부모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고, 기타소비지출은 편모가계가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상태는 가계자산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는데, 자가 보유한 양부모가계의 경우, 외식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졌으며, 이 중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의 지출액이 월세에 거주하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외식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및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월세에 거주하는 편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주거비와 교양·오락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에 거주하는 편모가계는 자가에 거주하는 양부모가계 보다 외식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에 더 많은 지출을 했고, 교양·오락비와 기타소비지출에 더 적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모두에서, 전세에 거주하는 가계가 소비지출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자가를 보유한 가계가 갖는 영향력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비목별로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면, 식료품비의 경우 편모가계의 소득효과가 양부모가계의 소득효과 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전세에 사는 편모가계는 전세에 사는 양부모가계 보다 식료품비의 지출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계의 가구원 수 증가는 외식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에 반해, 편모가계의 가구원 수 증가는 외식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연령이 외식비 지출에 대해 갖는 부적 영향력은 양부모가계 보다 편모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주거비 지출수준은 편모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편모가계의 광열·수도비 지출은 양부모가계에 비해 비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복·신발비의 경우에는 비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편모가계의 지출수준이 양부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했다. 교육비의 경우,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막내자녀 취학여부 등 많은 변수들의 영향력이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소득의 증가가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은 특히 편모가계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는 양부모가계에서 크게 나타났다. 교양·오락비는 거주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자가나 전세에 사는 가계 모두 양부모가계 보다는 편모가계의 지출액 수준이 낮았다. 반면, 교통·통신비는 자가나 전세에 사는 가계 모두 편모가계의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a)}

(N=15,132)

독립변수	종속변수		식료품비		의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비	
	상호 주효과	상호 작용 효과	상호 주효과	상호 작용 효과	상호 주효과	상호 작용 효과	상호 주효과	상호 작용 효과	상호 주효과	상호 작용 효과	상호 주효과	상호 작용 효과	상호 주효과	상호 작용 효과
상수항	6.32*** (0.11)	-1.77*** (0.51)	3.35*** (0.18)	3.18*** (0.87)	4.79*** (0.29)	-4.52** (1.45)	6.33*** (0.19)	-1.02 (0.83)	-4.55*** (0.39)	3.10 (1.77)	-3.14*** (0.33)	1.06 (1.48)		
소득(ln)	0.37*** (0.008)	0.14*** (0.04)	0.61*** (0.01)	-0.29*** (0.06)	0.52*** (0.02)	0.38*** (0.11)	0.29*** (0.01)	0.12* (0.06)	1.16*** (0.03)	-0.21 (0.10)	1.01*** (0.02)	-0.03 (0.11)		
비근로소득(ln)	0.006*** (0.3E-3)	-0.001 (0.002)	-0.003*** (0.5E-3)	-0.002 (0.003)	-0.005*** (0.9E-3)	0.002 (0.004)	-0.003*** (0.6E-3)	-0.006* (0.003)	-0.2E-3 (0.001)	0.006 (0.006)	-0.8E-3 (0.9E-3)	0.01** (0.005)		
가구원수 (ln)	0.39*** (0.02)	-0.11 (0.09)	-0.17*** (0.04)	0.97*** (0.15)	-0.20*** (0.06)	-0.68** (0.26)	0.24*** (0.04)	-0.03 (0.15)	-0.31*** (0.08)	-0.05 (0.31)	-0.23*** (0.06)	-0.21 (0.25)		
가구주 연령	0.005*** (0.8E-3)	0.002 (0.004)	-0.003* (0.001)	-0.014* (0.007)	0.003 (0.002)	0.02 (0.01)	0.006*** (0.001)	-0.006 (0.007)	-0.04*** (0.003)	-0.001 (0.014)	-0.004 (0.002)	-0.002 (0.012)		
가구주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0.008 (0.014)	-0.02 (0.04)	0.04 (0.02)	-0.25*** (0.06)	0.11** (0.04)	-0.27* (0.11)	-0.01 (0.02)	-0.01 (0.06)	-0.15** (0.05)	0.13 (0.14)	0.10** (0.04)	0.13 (0.11)		
초대졸이상	-0.006 (0.015)	-0.02 (0.08)	0.06** (0.02)	-0.20 (0.13)	0.14*** (0.04)	-0.45 (0.25)	0.001 (0.025)	-0.24 (0.13)	-0.14** (0.05)	0.35 (0.26)	0.09* (0.04)	0.12 (0.22)		
가구주직업 (단순노무직)														
전문·관리직	-0.01 (0.02)	0.16 (0.10)	0.19*** (0.03)	0.14 (0.18)	0.07 (0.05)	-0.13 (0.26)	0.10*** (0.03)	-0.16 (0.16)	0.01 (0.06)	-0.39 (0.33)	0.01 (0.05)	-0.35 (0.28)		
서비스·판매직	-0.10*** (0.02)	0.03 (0.05)	0.21*** (0.03)	-0.002 (0.09)	0.01 (0.05)	-0.43** (0.15)	0.02 (0.03)	-0.35*** (0.09)	0.06 (0.06)	-0.13 (0.18)	0.03 (0.04)	-0.32* (0.15)		
기능·기술직	-0.03 (0.02)	0.07 (0.07)	0.12*** (0.03)	-0.40*** (0.11)	-0.18*** (0.04)	-0.41* (0.18)	0.01 (0.03)	-0.14 (0.11)	-0.06 (0.05)	-0.17 (0.23)	-0.004 (0.04)	-0.3E-3 (0.19)		
막내자녀 취학여부(미취학)														
취학	-0.004 (0.009)	-0.09 (0.07)	0.15*** (0.01)	0.11 (0.11)	0.03 (0.02)	-0.28 (0.20)	0.03 (0.02)	-0.22* (0.11)	-0.15*** (0.03)	-0.004 (0.232)	-0.01 (0.02)	-0.10 (0.19)		
거주상태(월세)														
자가	0.12*** (0.01)	-0.03 (0.05)	-0.03 (0.02)	0.27*** (0.08)	-1.70*** (0.03)	0.02 (0.12)	0.17*** (0.02)	0.26*** (0.07)	0.29*** (0.04)	-0.14 (0.16)	0.15*** (0.03)	-0.18 (0.13)		
전세	0.09*** (0.01)	-0.13** (0.04)	0.01 (0.02)	0.29*** (0.06)	-1.84*** (0.03)	0.05 (0.17)	0.13*** (0.02)	0.09 (0.07)	0.25*** (0.04)	-0.22 (0.14)	0.01 (0.03)	0.16 (0.11)		

a) 단순화한 회귀식 $\ln Ci = XA + D_fXB$ (where, X는 독립변수 벡터, Df = 0(양부모) 또는 1(편모), A와 B는 회귀계수 벡터)에서, A가 주효과를 B가 상호작용효과를 의미함.

* p<.05 **p<.01 ***p<.001

<표 6>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a)} (계속)

(N=15,132)

독립변수	종속변수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상수항	-0.11 (0.43)	-3.76 (2.02)	-7.82*** (0.38)	-2.85 (1.55)	-7.61*** (0.33)	1.05 (1.45)	-0.16 (0.15)	-0.40 (0.68)	-3.95*** (0.20)	-4.85*** (0.91)
소득(log)	0.77*** (0.03)	0.08 (0.15)	0.98*** (0.03)	0.58*** (0.11)	1.30*** (0.02)	-0.18 (0.11)	0.91*** (0.01)	0.02 (0.05)	1.16*** (0.01)	0.31*** (0.07)
비근로소득(log)	0.004** (0.001)	0.002 (0.007)	-0.009*** (0.001)	0.008 (0.005)	-0.3E-3 (0.001)	-0.002 (0.005)	-0.004*** (0.5E-3)	-0.002 (0.002)	0.008*** (0.6E-3)	0.005 (0.003)
가구원수(log)	-0.12 (0.09)	0.64 (0.36)	2.08*** (0.08)	-1.81*** (0.28)	-0.32*** (0.67)	0.42 (0.26)	-0.34*** (0.03)	-0.06 (0.12)	-0.41*** (0.04)	0.04 (0.16)
가구주 연령	-0.009** (0.003)	0.043** (0.016)	0.051*** (0.003)	-0.05*** (0.01)	-0.012*** (0.002)	0.014 (0.012)	-0.009*** (0.001)	-0.007 (0.006)	0.001 (0.002)	-0.015* (0.007)
가구주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0.06 (0.05)	-0.19 (0.15)	0.37*** (0.04)	-0.12 (0.12)	0.19*** (0.04)	-0.21 (0.11)	0.02 (0.02)	0.03 (0.05)	0.04 (0.02)	-0.13 (0.07)
초대졸 이상	-0.001 (0.05)	-0.02 (0.31)	0.50*** (0.05)	-0.74** (0.25)	0.30*** (0.04)	0.62** (0.23)	0.04* (0.02)	0.07 (0.11)	0.05* (0.03)	0.66*** (0.14)
가구주직업 (단순노무직)										
전문·관리직	-0.13* (0.07)	0.81* (0.38)	0.27*** (0.06)	-0.65* (0.31)	0.14** (0.05)	0.18 (0.29)	0.14*** (0.02)	0.06 (0.14)	-0.03 (0.03)	-0.38* (0.18)
서비스판매직	-0.11 (0.06)	0.62** (0.20)	0.26*** (0.06)	-0.02 (0.16)	-0.04 (0.05)	0.34* (0.15)	0.15*** (0.02)	-0.14 (0.07)	0.01 (0.03)	-0.005 (0.09)
기능기술직	-0.09 (0.06)	0.65* (0.28)	0.32*** (0.05)	-0.004 (0.202)	0.07 (0.05)	0.33 (0.19)	0.09*** (0.02)	0.05 (0.09)	-0.02 (0.03)	-0.07 (0.12)
막내자녀 취학여부(미취학)										
취학	-0.27*** (0.03)	-0.23 (0.28)	0.17*** (0.03)	-0.56* (0.22)	-0.05 (0.03)	0.45* (0.20)	0.07*** (0.01)	0.10 (0.09)	-0.15*** (0.02)	0.82*** (0.13)
거주상태(월세)										
자가	0.18*** (0.05)	-0.21 (0.17)	0.29*** (0.04)	0.08 (0.14)	0.15*** (0.03)	-0.52*** (0.13)	0.14*** (0.02)	0.18** (0.06)	0.23*** (0.02)	-0.33*** (0.08)
전세	0.19*** (0.04)	-0.33* (0.16)	0.23*** (0.04)	0.18 (0.12)	0.21*** (0.03)	-0.38*** (0.12)	0.12*** (0.02)	0.19*** (0.05)	0.24*** (0.02)	-0.18* (0.07)

a) 단순화한 회귀식 $\ln C_i = X A + D_f X B$ (where, X는 독립변수 벡터, $D_f = 0$ (양부모) 또는 1(편모), A와 B는 회귀계수 벡터)에서, A가 주효과를 B가 상호작용효과를 의미함.

* p<.05 **p<.01 ***p<.001

3.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 비교

<표 7>은 소비지출 비목별 소득탄력성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표 6>에 나타난 소득탄력성 수치를 간략하게 재정리한 것이다.

고전적인 Kyrk(1933)의 연구에 근거하여, 소득탄력성이 0 보

다 크고, 1 보다 작으면 생활 필수재로, 소득탄력성이 1 보다 크면 사치재로 간주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분류인데, 필수재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지출도 같이 증가 혹은 감소하지만, 그 비율이 소득의 변화율 보다 작은 경우이고, 사치재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지출이 소득의 변화율 보다 크게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표 7>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 비교

소비지출비목	편모가계	양부모가계	차이 검증
식료품	0.51	0.37	0.14***
외식	0.32	0.61	-0.29**
주거	0.90	0.52	0.38***
광열·수도	0.41	0.29	0.12*
가구집기·가사용품	0.95	1.16	-0.21
피복·신발	0.98	1.01	-0.03
보건·의료	0.85	0.77	0.08
교육	1.56	0.98	0.58***
교양·오락	1.12	1.30	-0.18
교통·통신	0.93	0.91	0.02
기타소비지출	1.47	1.16	0.31***

* p<.05 **p<.01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및 기타소비지출의 경우에는 편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이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해서 위의 비목들에 대한 소비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모가계의 경우,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는 소득탄력성 계수가 각각 0.51, 0.41로서 필수재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주거비의 경우는 0.90으로 나타나 Douglas (1980)가 분류한 2차재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편모가계의 교육비, 교양·오락비와 기타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 계수는 1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의 증가율 보다 큰 폭으로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편모가계가 교육비, 교양·오락비 및 기타소비지출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교육비의 소득탄력성은 1.56 으로서, 편모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득탄력성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양부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앞 절에서 편모가계의 교육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및 1인당 지출액이 양부모가계 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소득탄력성 역시 이처럼 높다는 결과를 볼 때, 편모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편모들이 그들의 경제적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Garfinkel & McLanahan, 1986; Lino, 1990).

편모가계의 기타소비지출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 가계지출액이나 1인당 지출액 및 지출구성비의 비교에서 양부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적은 액수를 나타냈으나, 소득탄력성은 1.47로서 양부모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계가 현실적으로는 소득의 제약으로 인해 이미용비나 경조사비, 교제비 등 기타소비지출이 제한적이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해당 비목의 지출을 증가하고 싶은 욕구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외식비는 편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이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 보다 낮으면서, 그 차이가 유의한 유일한 비목이었다. 편모가계의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은 0.32로서 양부모가계의 0.61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모든 지출비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계의 외식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양부모가계 보다 크다는 선행연구(문숙재·정순희, 1995)와 다른 결과일 뿐 아니라, 선행 연구들에 비해 외식비의 소득탄력성 값이 두 집단 모두에게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가계조사의 외식비 비목이 음식을 구매한 후 집에 가져가서 식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비의 규모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행동을 비교하고, 두 집단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는 소비지출규모나 지출구성비, 그리고 소비지출에 관련 되는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편모가계의 총소비지출액(119만원)은 양부모가계 지출액(177만원)의 68% 정도였으며,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양부모가계의 지출액이 편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모가계의 외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소비지출은 양부모가계의 50~60% 선에 머물렀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편모가계가 재정자원의 절대적 부족을 경험하여, 생활필수재가 아닌 부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거비는 유일하게 편모가계의 지출액이 양부모가계 보다 많았는데, 이는 거주상태가 월세인 편모가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비가 편모가계의 소비지출구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편모가계의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가족구성원 1인당 소비지출규모를 살펴본 결과, 편모가계의 1인당 총소비지출액 역시 양부모가계의 지출액 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그러나, 1인당 주거비와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와 교육비는 편모가계의 지출액이 양부모가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편모가계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 지출비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및 교육비로 나타났다. 식료품비나 피복·신발비 등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비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편모가계의 소비생활수준이 양부모가계에 비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

하며, 주거비와 광열·수도비 비목은 편모가계의 상당수가 월세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편모가계의 소비지출구성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편모들이 그들의 경제적 복지감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을 자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항상소득의 대용변수로 사용된 총소비지출액은 두 집단의 모든 지출비목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비근로소득, 가구원의 수, 가구주 연령 등은 대부분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목별 지출에 상이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보이되,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 간에 영향력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계자산의 대용변수로 사용된 거주상태를 살펴보면, 자가나 전세에 거주하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및 기타소비지출에서 편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이 양부모가계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편모가계의 소비욕구가 양부모가계 보다 높은 비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편모가계의 교육비는 가장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편모가계가 실제적으로 교육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16.2%)을 할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의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가계의 주거비지출은 절대적 액수 및 구성비모두에서 양부모가계 보다 상당히 컸으며, 소득탄력성 역시 양부모가계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로 거주하는 편모가계에게 직면해 있는 주거비 부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저소득 편모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나 국민주택임대의 활성화와 같은 주거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편모가계의 소비지출구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탄력성 또한 가장 높다는 것은 편모가계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인적투자를 통한 노동시장의 생산성 증가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편모가계에게 교육비 지출에 대한 욕구는 큰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소비지출의 무리한 감소로 이어져 불균형한 지출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모가계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며, 교육의 형평성을 기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목별 소비지출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내구재 지출, 특히 주거비 지출을 측정하는 방

법은 오랫동안 논쟁의 초점이 되어왔으며,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내구재 지출은 내구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Friedman, 195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자료는 주거비를 측정할 때, 주택설비 및 관리비용과 월세 등만을 포함하였을 뿐, 내구재의 자본가치를 제외하였다. 즉, 자가평가액과 전세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으며, 주택대출상환 원리금지출 역시 포함하지 않았다. Maisel과 Winnick(1960) 역시 소유자산의 임대가치가 주택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척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거비 지출을 측정하는 보다 나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택구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를 소비재 혹은 서비스라고 간주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투자라고 보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후속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별, 이혼 및 별거, 그리고 미혼모로 구성된 편모가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소득구조나 소비지출행동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세부 집단에 대한 경제구조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편부가계의 증가가 편모가계의 증가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편부가계 역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이므로 편모가계와 편부가계의 경제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접수일 : 2003년 3월 15일

심사일 : 2003년 3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02일

【참고문헌】

- 공세권, 조애저(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순재·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6(2), 53-65.
-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이윤금·양세정(1999).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소비자학연구**, 10(4), 93-108.
- 조홍식(1996). 한국 빈곤 가족문제 현황과 대책: 빈곤 없는 21세기 한국. **가족관련 학술단체협의회 학술대회 자료집**, 4-20
- 주인숙(1998). 편모가정의 가계경제상태 평가. **상명대학교 자연과학 연구**, 5, 2-13.
- 통계청(2001). **인구총조사: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구성**
- 통계청(2002). **2002년 3/4분기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 허경옥(1995). 편모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출 비교 분석. **소비자학 연구**, 6(1), 1-19.
- Abdel-Ghany, M., & Schwenk, F.(1993).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single-parent and two-parent

-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299-315.
- Arendell, T. (1986). *Mothers and divorce: Legal economic and social dilemma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ller, A. H., & Chung, S. S. (1988). *Child support an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Family Public Policy, Greenwood press.
- DeWeese, G.(1989). Female-headed household: Impact of family structure in household expenditures for clothing.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210-215.
- Douglas, E. (1980).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41-46.
- Epstein, M. F.(1979). Children living in one-parent families, *Family Economic Review*, Winter, 21-23.
- Espenshade, T. (1984). *Investing in children*.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Friedman, M. (1957).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New Jersey: Princeton.
- Garfinkel, I., & McLanahan, S. S. (1986).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Hefferan, C. (1987). Consumer spending and saving: The outlook-for 1988. (Annual Agricultural Outlook Conference, Outlook 88, Session #25, 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orton, S., & Hafstrom, J.(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nsumption of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3, 292-303.
- Humphries, J. (1995). *Introduction in Gender and Economics*.
- Kyrk(1933).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 Brothers.
- Lazear, E. P., & Michael, R. T.(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no, M.(1990). Factors affecting expenditur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191-201.
- Lino, M.(1994). Income and spending patterns of single-moth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May, 29-37.
- Magrabi, F. M., Chung, Y., Cha, S., & Yang, S.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Schwenk, F. 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 Review*, 2, 15-20.
- Weiss, R. S.(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5-127.